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      |                          |              |  |
|------|--------------------------|--------------|--|
| 발행인  | 동지 회중앙부                  | Publisher    | Korean Dongji Hoi                      |
| 발행소  | 931 노스킹스트리트<br>호놀룰루, 하와이 | Address      | 931 North King St.<br>Honolulu, Hawaii |
| 사장   | 미정근                      | President    | Chung Kun Lee                          |
| 주필   | 김창원                      | Editor       | Donald C.W. Kim                        |
| 전화   | 850-849                  | Telephone    | 850-849                                |
| 발행도시 | 1742                     | Subscription | \$10.00 per year                       |
| 발행일  | 음력 5월 23일 금요일            | Issue No.    | 1742                                   |
|      |                          | Date         | May 9, 1969: Fri.                      |

## 비에트콩 수석대표가 + 항목화평안을 파리 확대화평회담본회의에서 제시

(파리 5월8일 밤, 에이피) 8일 열린 파리 확대화평 회의 제16회 본회의에서, 애방권선 김수석대표는 10항목으로 된 화평안을 제안, 북비에트콩.도이수석대표는 즉시 이를 지지하였다. 김수석대표는, "회국의 간섭을받지않고 비에트콩이 비에트콩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제안"이라고 밝히고, 그의 골자를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1) 잠정헌법내각을 만들고, 이것이 일반선거의 준비를하는 외에, 외명이 수립되고, 국민의 회가 성립할때까지, 정부를 담당한다. (2) 미군의 무조건전면철퇴, 비비에트콩연방군의 중립 회의 연합군기지의 전면적폐지이다. 헌법내각은 모든 정치적정당의 대표에의해서 구성되고, 국외에 망명중의 인물도 포함되여있다고 하는데, 북비에트콩군의 진퇴에대해서는 묵시 할아니하고있다. "비에트콩인의 문제는 비에트콩 자신이 해결한다"라는 개조에 포함된것으로도본다. 헌법내각은 남비에트콩.미국측이 제안 거부 하여온것이며, 미국은 또 미군의 일방적철퇴안에대해서도 이미 거부하고있다. 애방권선의 신 제안은 약간의 새로운 맞춘것이나, 미.남비에트콩에게는 과거의 제안의마찬가지로 아무 매력도 없는것이다. 최근 의심은과 사이곤의 태도가 완화된것으로 애방권선과 북비에트콩측의 권권 작전은 약해졌는데, 이신 제안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것이다. 맞지머수석대표는 "신 제안은, 정치적문제를 돌고있기때문에, 애방권선과 남비에트콩정부가 당사자가될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다음회는 15일 목요일인 불람서에서 크리스스의 승전축하일이기때문에 익일인 16일에 재개된다.

## 동맹국군의 철퇴미결정. 고-든 수상담

(워싱턴 5월7일 밤, 공중) 워싱턴을 방문중인 고-든.오스프레이아수상은, 2일간의 닉슨대통령과의 회담후에 기자회견을 7일 에하고, 동맹국군의 비에트콩으로부터의 철퇴에대해서 자기가 압고있는 안으로서는 아무 결정이없다고 말하였다. 동수상은, 이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것에대해서는? 귀국후 의회에서 결매를 명백히할것이라고 말하였다.

## 비에트콩 측이 하기공세를 계획

(사이곤 5월9일 밤, 에이피) 미군은 9일 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 "하기공세"를 모소하는 문서들 입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문서는 "하기공세는 성공하고, 닉슨대통령의 제위를 수도로 받아 가게하였다. (제2면에 계속)



(제 1면으로부터 계속)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가 공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니슨은 화평코스로 미국은 더 건조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수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춘기공세에서 미군은 대타격을 받고, 남비에르넬의 퍼피안의 지원도 요력을 잃어버렸다." 라고 춘기공세를 평가, "하기공세는 미국을 진실한 코스에 소개하고, 퍼군의 철병, 해방전선의 승인, 연립내각의 수락을 요구하는것을 목적으로한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다" 라고 하고있다. 동문서는 하기공세의 목적으로서 (1) 춘기공세 보다 더 강력하고, 미국에 큰 타격을 준다. (2) 미국, 남비에르넬군병력의 퍼멸과 동시에, 육이 남비에르넬의 춘.군의 권위에 타격을 준다. (3) 연합군우방기지에도 강력한 공격을한다. 등을 들고있다. 시기에대해서는 말하지안코잇는데, 전에 포획한 문서에서는 개시는 5, 6월이라고한다 또 춘기공세에서 연합군 4만5천명을 죽이고, 그중 반이 미군전사자라고보고있다. 연합군사령부 공로예외아면 동시기의 미.남비에르넬군전사자는 합계 3천5백17명이다.

이스라엘군. 율단을 넘어가 공격

(이스라엘 5월9일밤, 에이미) 이스라엘군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8일이라 율단강을 넘어서, 애람 유적대를 공격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공격대는 애람.유적대 3명을 죽이고, 와이.자비스의 가옥 12호를 폭파하였다. 또 8일밤부터 9일에 걸쳐서 스에즈운하에서는 2회에 걸쳐서 이스라엘.애람 연합군의 포격이 고조되었다. 레바논에서는 임시정부와 애람.유적단 "셀.사이카"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한편, 마릭.소련의무차관은 국련에서 스에즈운하에 있어서의 군련의 유권결정은 지지안하면안된다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수뇌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 관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스에즈운하를 따라서 건축한 요새 때문에 유권은 이미 적용 되지안한다" 라고 견해를 표명한 에지르드에함함 발언이라고본다.

중공과 소련, 국경에 핵병기 준비중

(뉴욕 5월8일밤, 공동) 뉴욕.타임지는 7일, 동경발 솔즈베리특파원전으로부터 "중.소 양국은 국경 근처에 핵병기를 대비하고잇는 모양이다" 라고 다음 파장이 보도하였다. 국동의 정보분석가에 의하면, 중.소 양국은 양국간의 국경에서의 군사력을 대폭강화하고잇다고한다. 이러한 정세의 위험한 측면의 하나는, 중.소 사상방이 국경으로부터 멀지안곳에 핵병기를 준비하고잇다는것이다 소련은 여러가지 만일 중공이 원자폭탄을 갖치고잇다면, 중공은 그것을 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잇다.

가가히 증공과 교섭, 캐나다 외상 정식 발표

(오와와 5월9일밤, 공동) 샤.드.캐나다외상은 8일의 하원에서, 캐나다와 증공양국의 외교관계의 상호승인에관하는 양국간교섭은 "가가히" 스톡홀름에서 열린다라고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또 샤.드외상은 "코섭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이간의 장정 조치로서, 곧과고류나 유학생 교환을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대해서 "이것은 약국에 국이 유익한것이다" 라고 말하고,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잠정적조치를 환영한다고 언명하였다.

소련서 장성 4명이 사망

(론돈 5월9일밤, 공동) 소련군방성의 기관지 "반간 별"은 8일, 최근 3주간에 소련군장성 10명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대해서는 론돈의 외교국은, 비행기의 추락사고인가, 그들의 참기 하고잇은 라켓트의 반사실험기에 폭발사고가 일어났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있다.

(제 3면에 계속)

(제 2면으로부터 계속)

동축이 어떠한 추정을하고잇는것은, 이들 장성중 수인이 직접, 방공 또는 라켓트에 관계하고잇는 것, 또 "반간 별이 그의 벗사람에대해서 "직부수행중 사망" "비극적상상의 죽음" 이라고 발표 하고잇기때문이다.

학생문제로 국제회의 제안, 케네디의원등계획

(워싱은 5월7일밤, 공동) 대학개혁에 새로운 구상을 가진 교수들, 세계의 대학본쟁의 당사자들 모아서, 적과되는 대학문제를 철저히 라협하기 위한 제국이, 에드워드.켄네디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있다. 작년 6월, 라성에서 용란에 넘어진 형인 코 라벳.켄네디상원의원의 기념으로, 이 설립된 라벳.켄네디기념재단 (총재 막내대라 세계은행총재) 의 최신의 국제적인 사업으로서, 국제회의를 보고잇는것, 케네디의원 생필, 학생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잇는것으로, 동재단의 사업으로서 가장 적당하다.라고 말하고있다. 인선들은 아직 집행되지안코잇는데, 각국의 학생교수를 미국내의 일가소에 모아서, 침식을같이하면서, 세계적시야에서 대학문제를 의논한다는것이 목적이라고한다. 케네디의원이 학생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잇는것은 만은사람이 다 안고잇는 사실이다.

"푸에부르호 승무원은 무죄"

채취 해군 장관이 결정

(워싱은 5월6일밤, 에이미) 채취해군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하고, "푸에부르호사건 관계자의 처벌은 일체 하지안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4센.디.에고에서 80일간에 걸쳐서 열린 해군사문회의의 탐장 모이드.부차장령과 조사장고 스티븐.해리스중위에대해서 군법회의를 요구하고잇었다. 부차장령은 푸에부르호 포획시에 저항하지안것 정보문서를 복선에 압수당한것 등 5권, 해리스 중위는 조사대지 취권으로서 능력을 가치지안했다는것 등 3권으로 죄를 받게 되어잇었다. 그러나 채취장관은 "푸에부르호승무원은 이미 충분한 고생을하였다. 그들을 더 처벌하는것은 정당지 안다" 라고 말하고, 사문회의의 권고를 각하하였다. 이결정에대해서는 동장관은 니슨대통령과 협의하지안코 판단하였다고 말하였다. 부차장령의 급우의 임명은 "동중령의 희망에따라서 동상의 방법" 으로 결정된다고한다. "이것으로 푸에부르호사건은 '뚫난것인가' 라는 질문에대해서, 동장관은 "그러라" 라고 대답하였다.

미군철퇴의 세조건, 미국방장관 명시

(버지니아주 워렌은 5월5일밤, 공동) 미국의 메아드국방장관은 3일 워렌에서 기자회견을하고, "세조건중 단한조건이라도 달성된다면, 미국은 남비에르넬으로부터 철병할수가잇을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세조건이라는것은 (1) 미국과 북비에르넬군이 상호철퇴에 합의한다. (2) 남비에르넬정부가 전수의 주요부분을 인수할수잇을만큼 충분히 강화된다. (3) 남비에르넬내에잇서서 해방전선과 북비에르넬의 활동의 수준이 "극히 축소"된다 등으로, 메아드장관은 이들 세조건이 모두든지 하나가 실현될때까지 미군철퇴는 불가능하다" 라고 언명하였다. 동장관은 오이러 동합참모본부의장파 기자회견한것으로, 미군철퇴의 조건이 이의안이 명목이 규정된것은 처음이다

7사-기동부대 여전 행동중

(워싱은 5월6일밤, 공동) 미국방중성당국은 5일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구축함 7척을 포함 하는 미제7기동부대는 현재에도 조선해의 공해상에서 행동하고잇다" 라고 말하였다.

(제 3 면)



### 사회보장법 급여액, 금년에 증액 곤란

(워싱턴 5월5일 밤, 에이피) 1969년도 예산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관계의 증액에 대해서, 국회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상원의 민주당유력자 펜스월드, 켈네디양의원은 10%의 증액을 주장, 하원에 대해서 밀스하원세입 위원장은 예산증액의 예측은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 펜스월드, 켈네디양의원은, 하원이 증액을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독자도 행동할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 실업률 3.5 퍼센트로 증가

(워싱턴 5월5일 밤, 에이피) 미국노동성노동통계국이 5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미의 4월의 실업률은 전달에 비해, 0.1% 증가의 3.5%가 되고, 최근의 고용의 급속한 신장은 감퇴하였다. 실업이 증가한 것은 부인, 여성노동자에 있어서도, 또 백인의 실업률이 3.1%로 낮은 차를 보이지 않는 것인데, 흑인은 6%로부터 6.9%로 증가하였다. 고용정책의 경향은 각 대기업에 대해서 보인다. 비농업고용자수는 전달에 비해 3만4천명 증가로, 68년 1월 이래 최저의 신장, 정부의 경제전문가측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정량정책 때문에, 연방정부가 경제의 높은 신장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업증가가 예기된다고 하고 있다.

### 사이곤 시내에서 폭행 행위 폭발

(사이곤 5월8일 밤, 에이피) 7일부터 8일에 걸쳐서 사이곤에서는 폭력행위 5건이 발생하였다. 8일 아침 사이곤 중앙우편국에서 소모를 가장한 주베스리 폭탄 2개가 폭발, 남비에트남인 25명이 사상한 것을 위시하여, 총계 남비에트남 5명이 사망, 남비에트남인 43명, 미국인 6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금년에 들어서 처음 되는 폭력사건으로, 사이곤경찰측에서는, 3일 전 디엔.비엔.푸 전승 기념일 제 15회에 해당하는 7일부터, 오.지.민 북비에트남대통령의 79세의 탄생일에 해당하는 19일까지 사이에 폭력행동과 기라들 오소하는 문서를 압수하고 있었다고 한다.

### 유에에 포격

또 해방전선은 2개월내 처음으로 고도 유에를 야간포격, 남비에트남인 3명이 사망하였다. 폭발되는 폭행에도 불구하고, 남비에트남정부는 8일, 30일의 불생회에 24시간 휴전한다고 선언하였다. 휴전은 사이곤 시간 오전 6시 (30일) 부터 시작된다. 한편 미군사령부는 미, 남비에트남, 한국연합군 4천명이 다난 남동 20마일의 해안의 바리야도에서 해방전선군을 소탕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여태까지 해방전선 55명이 전사, 57명을 포로로 하고 있다.

### 박수만의사 호항병원에 근무

본람 바야지여사의 딸 자제 박수만의사는 미주에서 자년도에 의학대학외과를 졸업하고, 상람에서 큰 병원에서 전습의사로서 집무연구중, 본람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하든지, 마침내 새인드.우랜시스 병원에 일자리가나, 금월 1일부터 수술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4월 28일에 해방하였다고 한다. 박수만의사의 편지를 기원한다.

### 사망 보고

본람 와이아와의 간순근씨의 모친이신 김봉연씨는 숙환으로 오래동안 심고증 백악이 무효로 5월 1일에 87세를 일기로 와이아외병원에서 별세하였는데, 장례식은 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보스 워싱턴에서 개관 조의식과 기도회가 있었고, 익일 오후 9시부터 하오 1시까지 다시 개관후 발인하여, 오아우장지에 안장하였다고 한다.

